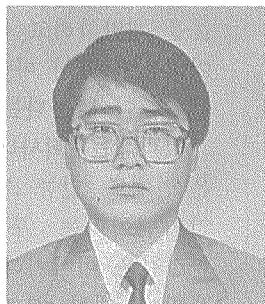


■업체탐방 : 일주씨스템(주)



상 호 : 일주씨스템(주)
대 표 이 사 : 이 경 훈
본사 · 공장 : 서울 서초구 양재
동 91-8(대보 B/D)
Tel : (02) 571~3477/8
주생산품목 : Barcode Printer,
Terminal Printer,
Printer Controller
Board, Ticket
Issuing Machine
등
설립 일 : '90년 7월



이 경 훈
대 표 이 사

자체개발에 성공한 일주씨스템(주)를 찾아보았다.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 자사상품 바코드와 1차상품, 그밖의 제품 및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 프린터는 거의가 외국제품이다. 이러한 외국제품과 국내에서 한판 승부를 겨냥하고, 남다른 창의적 제품의 개발이라는 취지하에 동사의 창업 동기는 설명되어진다. 또한 '90년 7월 출범당시 친구 3명 현재 대표이사 이 경훈, 상무 구 재광, 이사 김 영훈이 동업하여 짧은 시간에 바코드 프린터를 비롯, 많은 신제품 개발실적은 이 회사의 기술에 대한 애착과 승부근성을 말해준다 하겠다.

지금까지 일주씨스템(주)이 개발한 제품으로는 FA, OA 등에 사용되는 Barcode Printer, 금융기관의 고객대기 순번표 발행 등에 이용되는 Ticket-Issuing Machine, 유통 및 산업용기계에 적용되는 Printer Controller 등을 우선순위로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품에 대한 장점으로 이 경훈 대표이사는 “우선은 순수한 우리기술로서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을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저희가 추구한 바코

바코드 프린터,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인 듯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은행의 순번대기표, 각 상품마다의 코드 등 우리와는 너무도 가깝다. 本誌는 창립 2년도 안되어 국내 최초로 바코드 프린터를 순수

드 프린터는 소형, 경량화로 간편하게 휴대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인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외국제품과의 비교시 절대로 성능이 뒤지지가 않습니다. 가격 역시 절반 수준이지요. 앞으로도 변형개발의 분야가 넓어서 계속 연구·개발하여 국내 및 세계적으로 기술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동사는 지금까지의 기술개발 제품의 활용을 위하여 우편전산망처리의 계획으로 체신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국내 및 외국 업계로 부터의 많은 제품을 수주 받고 있다 한다. 동사의 올해 매출액은 내수는 8~9억원 수출은 300만불로 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경쟁업체가 없어 이러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 한다.

현재 개발담당 상무이사로 재직중인 구재광 이사는 “국산화 개발로 인한 원가절감과 넓은 시장으로의 창의적 개발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바코드 프린터의 개발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처음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시장은 활성화가 미쳐 안된 아시아를 비롯,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매우 밝은 전망입니다.” 올해 후반기부터는 본격생산할 계획이라 한다. 개발기간 중 어려웠던 점은 한마디로 개발자금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절실하게 아쉬웠다는 구이사. 이제는 정부도 기업

과 함께 신제품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의 전자사업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종업원은 20명으로 연구개발 9명, 사무실 4명, 검수 4명 등으로 구성된 작은 업체지만 적재적소에 인원을 활용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올해 후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며, 조만간 제품이 히트가 되면 생산라인 가동 계획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일주씨스템(주). 한편 수많은 해외 전자쇼에 출품하여 시장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동사의 이 경훈 대표이사는 정부와 업계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로 자금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지요. 저희도 바코드 프린터 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약 2억여원이 소용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제품에 비해 절대 뒤지질 않지요. 국산화 대체품 및 첨단제품의 개발에 자금지원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장자동화, 유통자동화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세계적인 급속한 변화에 대한 관련 기기들의 국내 실정이 낙후한 상황이기에 국내 자동화 산업에 일익을 담당코져 출범을 했다는 일주씨스템(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을 기원하며 本誌는 발길을 돌렸다.

